

教育施設の複合化の概念 및 必要性

Mixed-Use of School Facilities with Respect to Concepts and Necessities

柳 浩 燮*

Rieu. Ho Seoup

1. 복합화의 필요성

1.1 학교시설의 현황

1990년 이후 우리나라 학교시설은 그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실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학교건축계획과 관련지어 보면, 다양한 교육 방법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 특별교실의 종류나 수의 충실화와 교사연구실의 설치 그리고 컴퓨터실과 어학실의 설치등으로 연결되는 내부 공간의 충실화, 교사의 외관이나 평면형태에서도 획일적 형태를 타파하고 다양한 형태를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등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 7차 교육 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교사형태에 대한 연구와 일부 학교의 시도, 그리고 학교건축의 계획이나 설계의 실시과정중에 사용자의 참가와 설립후의 사용자의 평가등에 대한 시도와 아울러 오늘 특집의 주제인 교육시설의 복합화에 대한 움직임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현재 교육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세부 내용이나 시·도 교육청의 시설부문의 평가항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과제로 되어있다.

한편 우리나라 학교들의 시설 현황을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뒤엉켜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이나 12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

고 있는가 하면 36학급이 넘는 대규모 학교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상태, 또한 과대 학급규모의 학교도 상당수 있는 현실, 신설이 아닌 기존의 학교에서는 특별교실의 종류나 수가 학급규모에 월등히 부족한 실태, 열린교육을 하고자 해도 공간적 대응이 부족한 상태, 도심지 학교에서는 인구나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여유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농어촌에서는 도심지와는 역으로 폐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등의 여러 문제점이나 현상들이 뒤엉켜 있다. 선진국에서는 3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생해 온 상태가 우리나라에서는 약 10여년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시설에 관한 정책도 획일적인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역마다의 현실과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 학교시설의 복합화라는 것은 매우 앞서가는 주제일지 모른다.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요즘 IMF의 상황속에서는 더 더욱 그러하다.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신설 학교수는 전체 학교수에 비해 볼 때에 그리 많지 않다(필자는 상당수의 학교가 더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 복합화의 필요성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복합화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도 생각된다. 그 이유로서는 학교건축만

* 정회원,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에서의 시점이 아닌 시·도 규모의 대규모가 아닌 구나 읍·면·동단위의 지역 문화시설, 사회 교육시설, 스포츠 시설, 복지시설등의 보급과 정비상태를 고려해 볼 때, 복합화의 필요성은 매우 절실하다고도 판단된다.

이런 종류의 시설들중에서 일부시설의 전국 보유현황(문화관광부 1998년 청소년 백서)을 보면, 구민회관의 수는 모두 106개, 문화공간으로서는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등이 있는데 도서관으로는 9,854개소(이중에서 공공도서관은 370개소뿐), 박물관 219개소, 미술관 36개소, 공연·전시시설은 1649개소 여성회관은 전국별 분포를 보면 모두 78개이며,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은 284개소(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약 2,000개소), 노인복지회관은 80개소의 분포이다. 시설에 따라서는 매우 많은 듯 하나 실상은 다르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370개소로 1도서관당 123,84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그 수가 부족함을 대변해 주고 있다. 여기에 각 시설의 질적인 수준을 고려하면 실태는 더욱 빈약해질 것이 예측되며, 이러한 실상은 이하에 언급하는 평생교육법(안)의 이념이나 목표와 비추어보거나, 선진국과 구체적인 지표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매우 열악한 상태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2. 복합화와 평생교육

현재 정부는 평생교육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주창하는 평생교육법(안)이 슬로건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교육부의 평생교육백서(1998년, 제2호)에서는 21세기 미래환경의 변화와 특징으로서는 1. 첨단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 도래 2. 세계화·개방화의 가속화와 지역주의 공존 3. 다원화 사

회와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 4. 21세기 산업환경의 변화와 지식인적 자본시대를 열거하고 있으며, 21세기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변화와 특징으로는 1.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의 변화(정보직업군의 증가, 탈속련 직종의 증가, 사무직의 여성화, 봉급·임금 근로자의 증가) 2.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구구조와 삶의 주기 변화(인구구조와 변화와 사회변화, 교육환경의 변화와 인적자본의 전망) 3. 지식 및 정보의 폭발로 인한 인간소외문제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서 정부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의 발전과제로서 1. 성인학습 참여율 제고와 교육참여 유인체제 구축 2. 평생교육 정보망과 평생학습 상담 체제 구축(평생교육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평생교육기관들의 컴퓨터 환경구축, 평생학습 상담센터 설치운영) 3.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충 4. 고용촉진 능력개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충 5.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평생 학습의 활성화,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일련의 시설들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부지구입에 많은 재정이 투자되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설립된 시설들을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위치 확보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투자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기존의 학교의 분포와 위치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그 지역에서도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인지도도 매우 좋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복합화에 대한 논의는 어찌 생각해 보면 교육부나 지역 교육청 보다는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적극성을 띠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3. 선진국들의 복합화의 추진방법과 현황

3.1 영국에서의 복합화

영국에서는 1. 지역전체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필요에도 응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적, 인적자원으로서 형성해간다. 2. 교육시설이나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레저시설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폭 넓은 요구에 대응하여 시민의 최대한의 이용을 유도하여 생애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3. 커뮤니티의 이해나 인식, 지원,공헌, 문제의 해결, 교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으로 한다, 특히 신체장애자나 특별한 요구를 지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이같은 복합시설의 모든 결정, 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촉진한다. 라는 지침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찍이 1930년대 이후 학교에서의 교육 서비스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 대하여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흐름과 아울러 체육시설의 충실을 요구하는 흐름이 있어왔다. 이러한 흐름은 학교시설을 야간에 주민들의 사용에 제공한다거나 학교의 체육관에 비교적 소규모의 스포츠 홀을 부설하여 그 것을 주민들에 개방하는 움직임부터 시작하여 학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실내 수영장도 설치되어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지게 되었다.

1976년에 평생교육법이 성립되며 커뮤니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감과 아울러 상기의 움직임은 하나로 통합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중에 유치원, 보육원, 초등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활용도 이루어져갔는데 학교의 의자나 책상등의 작기 때문에, 어른들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체육시설 가까이에 부설되어졌고 그 것이 충실해진 가족센터(Family Center)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평생교육에 대응하는 영국 교육시설의 복합화 유형은 아래와 같이 복합화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한다.(School Amenity. 1991.5 NO 57에서 인용)

첫 번째 유형으로서는 「학교시설+커뮤니티 룸」인데 이는 학교시설을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학교에 커뮤니티의 거점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서는 「학교시설+스포츠센터, 소위 레저센터」로서 학교에는 스포츠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커뮤니티 시설로서 설치하여 서로 이용하게 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스포츠 센터, 레저센터라고 불리워 지기도 하며, 의식적으로 사용을 분리하여 극장등 스포츠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커뮤니티센터라고도 불리워진다.

세 번째 유형으로서는 「커뮤니티 스쿨」이라고 불리워지는 유형으로서 주민에게의 개방을 전제로 학교를 충실하게 하여 학교와 지역이 공유하는 유형이다.

네 번째 유형으로서는 「대규모 복합시설」의 유형으로서 많은 경우에는 10여종 이상의 시설이 복합되어 어린아이에서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이용하게 하는 유형이다.

다섯 번째 유형으로서는 「별동형 복합시설」로서 네 번째 유형이 학교건물과 일체된 건물이라면 이 경우는 의식적으로 소규모의 건물로 분리시켜 설치한 유형이다.

3.2 일본에서의 복합화

일본에서의 학교시설의 복합화란 동일건물 또는 동일부지내에 학교시설과 기타 사회교육시설, 문화시설, 스포츠시설등을 서로 밀접하게 기능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게 하며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공존·융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98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복합화가 시도되어 온 일본의 경우 초·중학교의 복합화는 복합대상으로 분류해 볼 때 2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즉, 첫째는 교육시설계와의 복합화이며 여기에는 다시 1)학교교육시설끼리의 복합 2)사회

교육시설과의 복합 3)사회체육시설과의 복합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시설계와의 복합화로서 여기에는 1) 아동복지 시설 2)특별노인홈(양노원) 3)고령자 데이 서어비스 센터 4)고령자 학습시설과의 복합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1998년 일본 문부성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조사연구 결과 보고서인 「복합화 및 고층화에 따르는 학교시설의 계획·설계상의 배려에 대하여」에서는 초등학교 367개교, 중학교 102개교가 복합화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 학교의 복합화 대상의 시설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복합시설의 종류

사 회 교 육	사 회 체 육	기타교육 시 설	아 동 복 지	고령자 복 지	행 정 기 관	기 타
236(50.8%)	88(18.3%)	49(10.4%)	97(20.7%)	13(2.8%)	45(9.65)	20(4.3%)

- * 사회교육:공민관, 도서관, 생애학습센터등 사회체육:체육관, 무도관, 수영장
- * 기타교육시설: 문화홀, 집회장등 아동복지: 보육소, 아동관등
- * 고령자복지: 재택개호지원센터, 데이케어센터, 특별양호노인홈, 행정기관:출장소, 교육센터등 기타:장애인복지시설, 지역활성화센터

물론 이외에도 교육시설간의 복합화도 다수의 사례가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들 2개국 이외의 유럽에서는 복합화라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커뮤니티 시설로 추진해 오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부지의 효율적인 면이 강조되어 추진되어져 왔다고도 한다.

이들 선진국들의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과 시간이 지나면서 복합화의 대상은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 시설의 규모가 시·도의 범위에서 필요한 대규모의 공공시설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소·중규모의 시설이라고도 생각된다. 복합화가 추진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주로 사회교육, 사회체육, 교육

센터등의 시설이 복합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제는 단순한 학교시설의 개방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주민의 이용과 평생교육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복합화의 대상도(학교교육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시설까지)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복합화의 개념

4.1 복합화의 개념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복합화라는 것이 이제 시작단계이다. 따라서 학교시설에 관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조차 종종 복합화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울러 학교시설의 개방과는 어떻게 다른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은 필자가 작년에 실시된 시·도 교육청의 시설부문의 평가시에도 자주 경험을 하곤 했다. 즉 어느 학교가 체육관, 강당, 수영장등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였다고 했을 때 이 경우가 복합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견해이다. 결론적으로 이들 시설을 학생 위주의 활용을 전제로 하여 설치하였다면 설사 지역주민이 체육관을 활용한 다 하더라도 이는 개방이지 복합이 아니다.

그러나 체육관의 규모나 내부 공간등의 구성에 있어 지역주민(성인)의 사용에 맞게 설정하여 지역주민의 사용을 우선시 한다면 이는 복합화라 할 수 있다. 앞서 우리의 현실이라 함은 현재 학교의 교육목적상 체육관을 설치한 곳은 드물고 최근에는 체육관이나 강당등을 신축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이다. 체육관은 학교의 기본적 교육시설이다. 단지 현실적으로 우리의 여건상 설립되어 오지 않았던 것 뿐이다.

개념과 실시방법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학교의 기본시설(교육과정의 운영상)의 종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필자는 이 번 기회에 개방과 복합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학교시설의 개방: 학교개방이란 기존의 학교

시설이나 공간을 지역주민이 여러 필요에 따라 방과후 또는 수업시간중에도 빈교실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개방이다. 개방의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부터 해오고 있는 운동장 이용, 선거때의 투표장등으로 활용등의 사례부터 학부모 대학, 컴퓨터 학습, 영어회화, 풍물놀이 등등의 사례가 눈에 띈다. 또한 최근에는 도심지에서는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빈 교실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학교시설·설비·공간의 활용이라는 것이다.

학교시설의 복합화: 복합이라는 것은 학교개방과 달리 학교의 신축·증축·개축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의 필요에 의해, 또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여러 종류의 시설을 부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학교와 일체적으로 또는 동일 부지내에 설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설립한다고 해서 복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사가 수렴된 계획과정을 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4.2 학교건축계획시의 고려사항

어느 학교가 개방을 하던 복합을 하던 문제는 학교건축계획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개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이용을 전제로 한 시설·설비, 공간은 학생들의 수업, 또는 시설의 관리·유지라는 측면에서 아울러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지역주민 전용의 공간,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공동이용 공간, 학생들만의 이용공간등의 영역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또한 개방을 어느 공간까지 할 것이간에 대한 것도 계획시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학교가 운동장 위주로 개방을 해왔으나 특별교실도 개방을 하고자 한다면 특별교실도 개방영역에 포함시키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특별교실의 위치는 고학년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고학년 영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일반적인 지침과 달라진다

는 것이다) 또한 출입동선에 대한 분리도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하나 장애자의 원활한 이요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의 설치는 필요조건임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합에 따른 이용자층을 고려해 대상 공간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적극 활용을 유도하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시에도 질 좋은 공간에서 수업을 하게 되 교육적 효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복합화를 하기 위하여는 출입 동선의 분리, 또는 공간영역에 대한 구분등의 기본적인 내용은 개방의 경우와 다를바 없다. 또한 일본에서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건물이 고층화 되는 사례가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다한다.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각 학교의 여유교실을 최대한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5. 복합화를 위한 개선과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여, 학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단순한 교육시설에서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의 다양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 넓은 의미의 학습 시설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학교라는 하나의 장소에 모여서 서로 자극을 주면서 학습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해왔듯이 복합화의 대상은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여건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복합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중에 학교, 지역주민, 운영의 주체자들의 합의와 공통된 의견을 이끌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향후의 이용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적어질 것이다. 또한 실시과정이나 복합대상의 선정시에도 소규모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향후의 공

공시설의 정비계획이나 주민들의 평생교육시설과 편의시설의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이중투자가 되지않으며 균형있는 정비계획이 되어야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학교급별에 따른, 예를 들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위치에 따른 질서가 필요하다. 즉 초등학교의 복합화 대상 시설로서는 가장 적은 단위규모의 커뮤니티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중등학교에는 보다 큰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질서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영국의 예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의 투자유치, 예를 들면 스포츠 센터, 어학센터, 문화센터등의 민간건물도 복합화의 대상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상시설의 종류로서는 유치원, 장애인 시설, 영유아시설, 노인정, 회관(문화회관, 청소년 회관, 새마을 회관, 노인회관등), 노인정, 양노원, 지역 도서관, 보건소, 파출소, 레저시설, 스포츠 시설(수영장, 체육관등), 동·면·읍사무소들의 시설과 아울러 주차장, 약국, 은행등이 열거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복합화를 추진하고자 하려면 학교설립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간에 대한 재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계획 및 설계기간이 짧은 현 상태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의견수렴, 지역자치단체와의 협의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설학교의 예산편성을 미리하고 충분한 기간을 검토하고 설립해야만 향후의 적극적 이용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에 들어 획일적인 학교건축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기는 하나 그 지역과 설립내용, 복합화에 맞는 학교건축계획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한 지침을 사전에 협의해 학교만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이 없어야 원활한 운영이 기대된다. 따라서 교육부나 각 교육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시설의 정비라는 차

원에서 재정투자와 운영등에 대한 협조도 필요하며 관련부서에서도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中村隆行, 學校施設の複合化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 School Amenity, 1991.5 제6권5호
 渡邊昭彦, 我國の學校施設の複合化の方向性となり方を考える.
 School Amenity, 1991.5 제6권 5호
 日本文部省大臣官房文教施設部指導課, 複合化及び高層化に伴う學校施設の計劃・設計上の配慮について, 1997.10
 교육부, 평생교육백서, 제2호, 1998. 12
 ニュースクールデザイン事典, 株式會社 産業調査會, 1997.5